

목포시 성인지 통계



목 포 시
[여성가족과]

목포시 성인지 통계

○ 조사목적 : 분야별 성별 현황과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과정 전반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

○ 조사분야 : 여성친화도시 조성 영역별 관련 지표

○ 작성방법

- 목포시 내부 행정통계 자료와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 주요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연계·결합하여 작성함.
- 조사 주기가 2~5년 등일 때는 가장 최근 자료를 수록함.

○ 작성지표 및 출처 : 4대 목표, 21개 지표

목표	항목	지 표	출 처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경제 활동 현황	1. 취업자 현황	
		1-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2020)
		1-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23)
		2. 일자리 충분도	
		2-1. 일자리 만족도	· 목포시 사회조사(2025)
		2-2.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 목포시 사회조사(2025)
		3.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목포시 사회조사(2024)
		4. 여성취업 지원기관 이용실적	· 여성인력개발센터 실적(2025)
		5. 모성보호지급자 현황	· 고용행정통계 EIS(2025)
지역사회 안전	이동 안전	6. 안전인식	
		6-1. 야간활동 안전성	· 목포시 사회조사(2025)
		6-2. 야간활동이 불안한 이유	· 목포시 사회조사(2025)
		6-3. 야간활동 불안시 대처방법	· 목포시 사회조사(2025)
		6-4. 범죄 두려움(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 목포시 사회조사(2024)
		6-5. 범죄 두려움(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 목포시 사회조사(2024)
	폭력 예방	7. 젠더폭력 감수성 및 예방 노력	
		7-1. 젠더폭력 목격자 신고 의지	· 목포시 사회조사(2025)
		7-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안	· 목포시 사회조사(2024)
돌봄환경	가족 친화 돌봄 환경	8. 교육환경	
		8-1. 교육환경 만족도	· 목포시 사회조사(2025)
		8-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목포시 사회조사(2024)
활동영역 강화	성평등 의식	9. 가족 내 역할분담 인식	
		9-1. 가족 내 의사결정	· 목포시 사회조사(2025)
		9-2. 가족 내 역할분담	· 목포시 사회조사(2025)
		10. 성역할 인식	
		10-1. 성별 고정관념	· 목포시 사회조사(2025)
		10-2. 성별 직업 인식	· 목포시 사회조사(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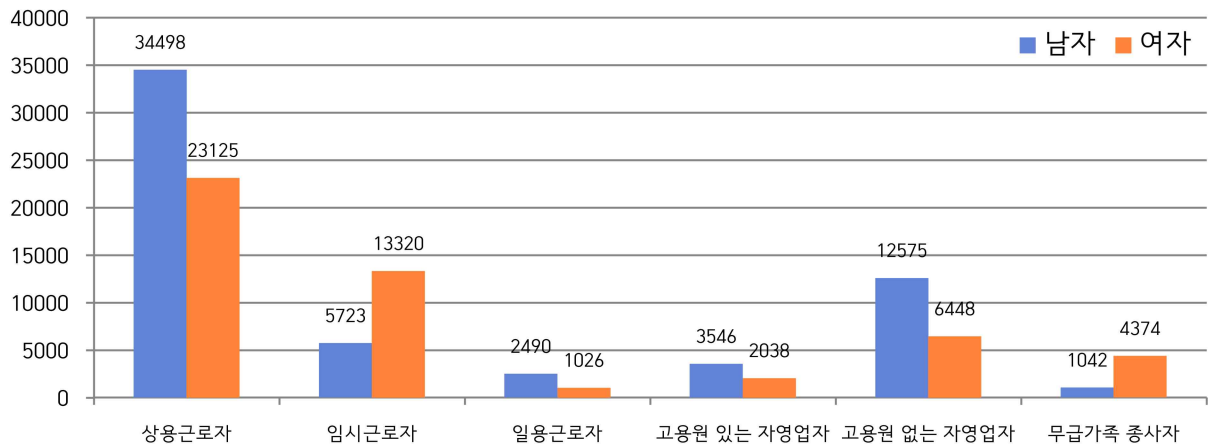
추진목표 1.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1-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2025년 상반기 목포시 15세 이상 취업자는 110,204명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59,874명(54.3%), 여성은 50,330명(45.7%)임.
- 임금근로자가 72.8%, 비임금근로자가 27.2%이며,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57,623명(52.3%), 임시근로자 19,043명(17.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9,024명(17.3%) 순임.
- 남성은 상용근로자 34,498명(57.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2,575명(21.0%), 임시근로자 5,723명(9.6%) 순으로 취업하고, 여성은 상용근로자 23,125명(46.0%), 임시근로자 13,320명(26.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448명(12.8%) 순으로 취업함.
- 무급가족종사자 중 남성은 1,042명(19.2%)인데 반해 여성은 4,374명(80.8%)으로 여성이 압도적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단위 : 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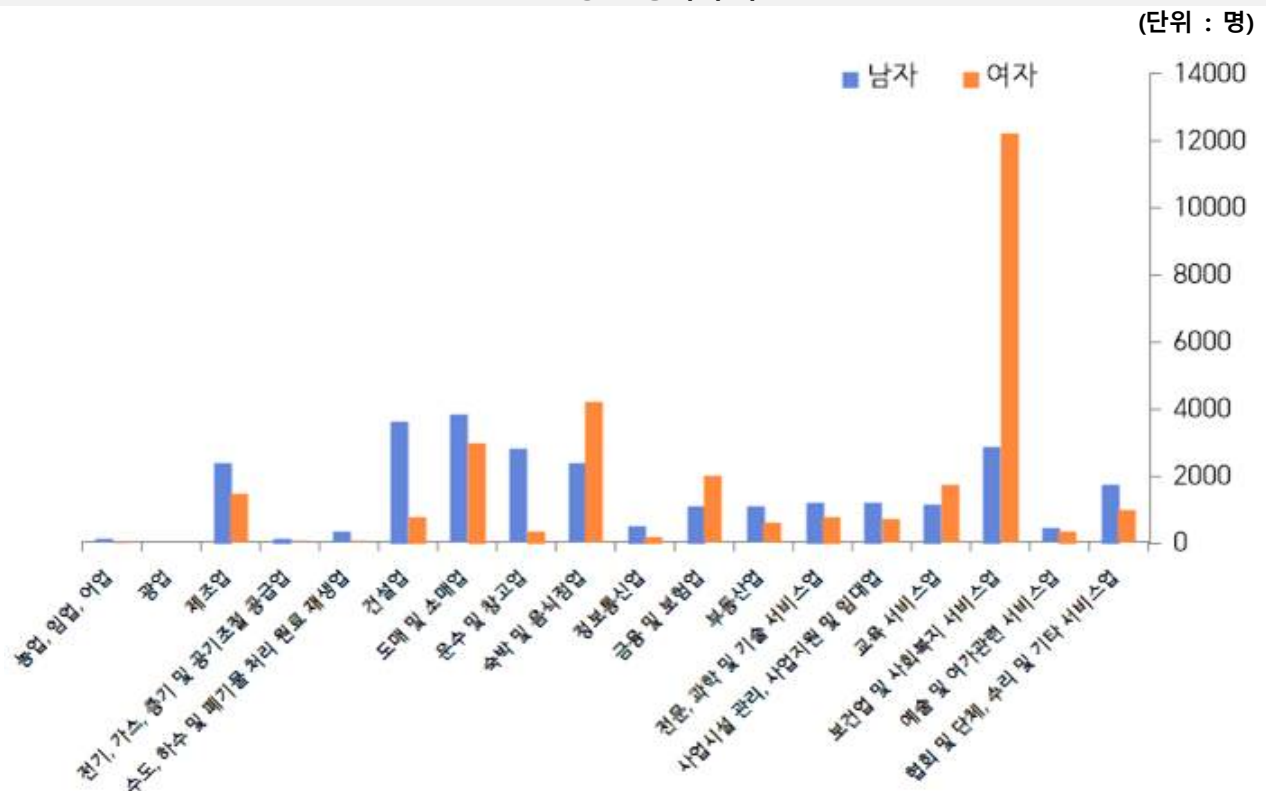
구분	취업자 (15세 이상)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110,205	57,623	19,043	3,516	5,584	19,024	5,415
남자	59,874	34,498	5,723	2,490	3,546	12,575	1,042
여자	50,331	23,125	13,320	1,026	2,038	6,448	4,374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2025 상반기)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1-2.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 (산업별) 2023년 기준 목포시 소재 사업체수는 8,086개소이며, 총 종사자수는 55,967명으로 성별로 보면 남성은 26,717명(47.7%), 여성은 29,250명(52.3%)임.
-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1,643개소, 20.3%)과 숙박 및 음식점업(1,582개소, 19.6%)임.
-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069명, 26.9%)이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6,799명, 12.1%), 숙박 및 음식점업(6,557명, 11.7%) 순임.
- 남성 종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3,813명, 14.3%)이며, 여성 종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203명, 41.7%)임.

<산업별 성별 종사자 수>



-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86.9%(1~4인 : 65.8%, 5~9인 : 21.1%)를 차지하며, 이들 사업체에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42.1%(1~4인 : 22.9%, 5~9인 : 19.2%)가 종사하고 있음.
- 1~4인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자 수(12,846명, 22.9%)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29인 규모의 사업체(12,222명, 21.8%)에 많이 종사함.
- 여성은 10인 미만의 사업체 중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3,653명, 32.7%)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10인 이상의 사업체 중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658명, 58.9%)에 많이 종사함.

<종사자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규모				1~4인				5~9인			
		사업체	종사자	남	여	사업체	종사자	남	여	사업체	종사자	남	여
전	체	8,086	55,967	26,717	29,250	5,325	12,846	6,966	5,880	1,704	10,733	5,455	5,278
농업, 임업 및 어업		11	134	102	32	6	8	6	2	3	19	15	4
광업		0	0	0	0	0	0	0	0	0	0	0	0
제조업		550	3,816	2,376	1,440	326	756	555	201	126	821	601	220
전기·가스·증기 및 공급업		11	153	118	35	6	9	7	2	3	19	14	5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사업		29	361	314	47	13	32	22	10	10	67	53	14
건설업		626	4,411	3,629	782	321	821	630	191	191	1,218	968	250
도매 및 소매업		1,643	6,799	3,813	2,986	1,245	3,157	1,822	1,335	311	1,899	1,060	839
운수 및 창고업		272	3,146	2,794	352	164	310	234	76	36	240	199	41
숙박 및 음식점업		1,582	6,557	2,365	4,192	1,136	3,342	1,225	2,117	392	2,339	803	1,536
정보통신업		90	670	488	182	63	141	94	47	8	46	32	14
금융 및 보험업		190	3,079	1,096	1,983	46	105	58	47	58	393	194	199
부동산업		309	1,661	1,073	588	181	366	235	131	67	451	276	17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4	1,959	1,204	755	180	448	284	164	73	472	255	217
사업설립·사업지원 및 임대사업업		230	1,878	1,191	687	157	342	232	110	35	214	141	73
교육 서비스업		351	2,840	1,129	1,711	238	602	232	370	61	392	133	2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14	15,069	2,866	12,203	235	647	214	433	200	1,326	214	1,112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89	739	412	327	145	324	184	140	31	199	101	98
협회 및 단체, 수위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95	2,695	1,747	948	863	1,436	932	504	99	618	396	222

구	분	10~29인				30~49인				50~99인			
		사업체	종사자	남	여	사업체	종사자	남	여	사업체	종사자	남	여
전	체	795	12,222	6,269	5,953	134	5,046	2,017	3,029	86	5,700	2,495	3,205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0	0	1	44	31	13	1	63	50	13
광업		0	0	0	0	0	0	0	0	0	0	0	0
제조업		85	1,256	834	422	6	264	71	193	6	433	237	19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급업		0	0	0	0	0	0	0	0	2	125	97	28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사업		4	75	65	10	1	33	27	6	0	0	0	0
건설업		100	1,456	1,223	233	7	271	248	23	4	233	216	17
도매 및 소매업		81	1,226	694	532	1	31	29	2	3	212	107	105
운수 및 창고업		45	694	619	75	13	499	403	96	9	581	563	18
숙박 및 음식점업		48	659	229	430	6	217	108	109	0	0	0	0
정보통신업		14	224	156	68	3	100	74	26	2	159	132	27
금융 및 보험업		54	846	308	538	19	706	216	490	11	675	181	494
부동산업		60	814	537	277	1	30	25	5	0	0	0	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	466	345	121	4	150	93	57	4	237	136	101
사업설립·사업지원 및 임대사업업		27	464	308	156	4	152	59	93	4	270	141	129
교육 서비스업		27	403	102	301	12	464	184	280	12	820	377	4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0	3,079	494	2,585	48	1,788	258	1,530	28	1,892	258	1,634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	171	98	73	1	45	29	16	0	0	0	0
협회 및 단체, 수위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	389	257	132	7	252	162	90	0	0	0	0

구	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남	여	사업체	종사자	남	여	사업체	종사자	남	여
전	체	24	3,350	1,710	1,640	13	3,077	1,002	2,075	5	2,993	803	2,190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0	0	0	0	0	0	0	0	0	0
광업		0	0	0	0	0	0	0	0	0	0	0	0
제조업		0	0	0	0	1	286	78	208	0	0	0	0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	0	0	0	0	0	0	0	0	0	0	0
숙박업 및 음식점업		1	154	147	7	0	0	0	0	0	0	0	0
건설업		3	412	344	68	0	0	0	0	0	0	0	0
도매 및 소매업		2	274	101	173	0	0	0	0	0	0	0	0
운수 및 창고업		4	611	565	46	1	211	211	0	0	0	0	0
숙박 및 음식점업		0	0	0	0	0	0	0	0	0	0	0	0
정보통신업		0	0	0	0	0	0	0	0	0	0	0	0
금융 및 보험업		1	132	43	89	1	222	96	126	0	0	0	0
부동산업		0	0	0	0	0	0	0	0	0	0	0	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86	91	95	0	0	0	0	0	0	0	0
사업설계업, 사업지원업 및 임대사업업		2	220	168	52	1	216	142	74	0	0	0	0
교육 서비스업		1	159	101	58	0	0	0	0	0	0	0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	1,202	150	1,052	9	2,142	475	1,667	5	2,993	803	2,19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	0	0	0	0	0	0	0	0	0	0	0
협회 및 단체, 수위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	0	0	0	0	0	0	0	0	0	0	0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23)산업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사업체 규모는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를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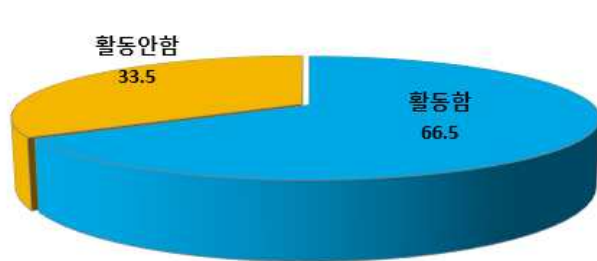
2-1. 일자리 만족도

남성 66.5%, 여성 49.0%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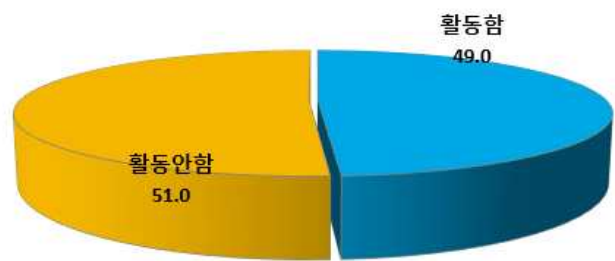
○ 목포시 응답자 총 1,699명 중 57.0%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43.0%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의 66.5%, 여자의 49.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이 없는 응답자」는 무직(+기타) 51.8%, 주부 37.3%, 학생 11.0% 순으로 나타남.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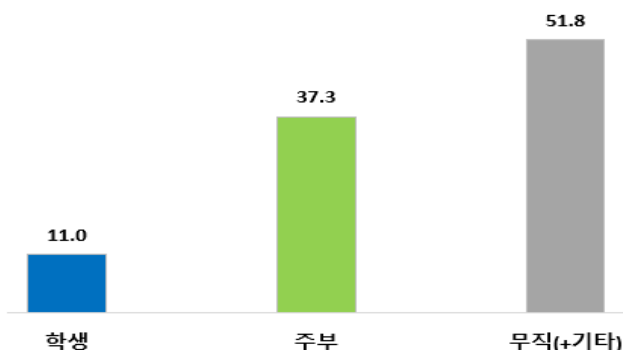
여자

<경제활동 현황>

(단위 : 명, %)

조 사 응답자	전체			남자			여자		
	계	활동함	활동안함	계	활동함	활동안함	계	활동함	활동안함
1,699	100.0	57.0	43.0	100.0	66.5	33.5	100.0	49.0	51.0

<비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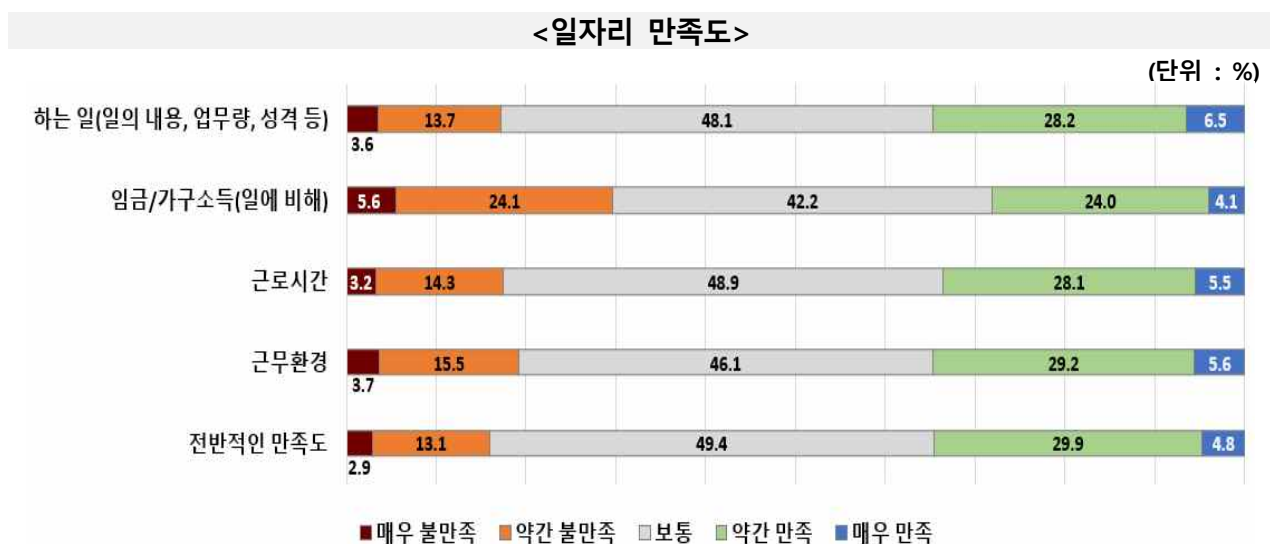
(단위 : 명, %)

조사 응답자	학생	주부	무직 (+기타)
730 (100.0)	80 (11.0)	270 (37.3)	380 (51.8)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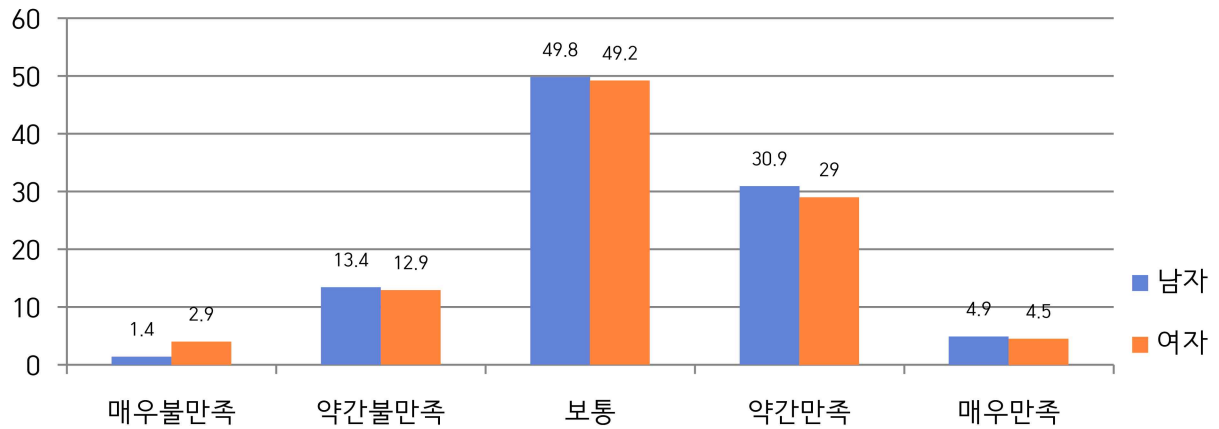
남성 35.4%, 여성 34.3%는 현재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만족도는 「보통」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고, 「만족」(매우+약간 만족) 34.7%,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 17.3% 순으로 나타남.
 - ‘업무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자(33.0%)보다 여자(36.9%)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가구소득 만족도는 「보통」 응답이 42.2%로 가장 많고,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 29.7%, 「만족」(매우+약간 만족) 28.1% 순임.
 - ‘임금/소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자(28.0%)와 여자(28.2%)가 비슷하게 나타남.
- 근로시간 만족도는 「보통」 응답이 48.9%로 가장 많고, 「만족」(매우+약간 만족) 33.6%,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 17.5% 순임.
 - ‘근로시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자(33.7%)와 여자(33.5%)가 비슷하게 나타남.
- 근무환경 만족도는 「보통」 응답이 46.1%로 가장 많고, 「만족」(매우+약간 만족) 34.8%,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 19.2% 순임.
 - ‘근무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자(33.7%)보다 여자(36.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응답이 49.4%로 가장 많고, 「만족」(매우+약간 만족) 34.7%,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 16.0% 순임.
 - ‘일자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자(33.9%)보다 여자(35.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



(단위 : %)

구 분		계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2021년		100.0	2.7	11.4	57.5	23.5	4.9
2023년		100.0	0.7	14.5	47.9	28.7	8.2
2025년		100.0	2.9	13.1	49.4	29.9	4.8
남	자	100.0	4.0	12.9	49.2	29.0	4.9
여	자	100.0	1.4	13.4	49.8	30.9	4.5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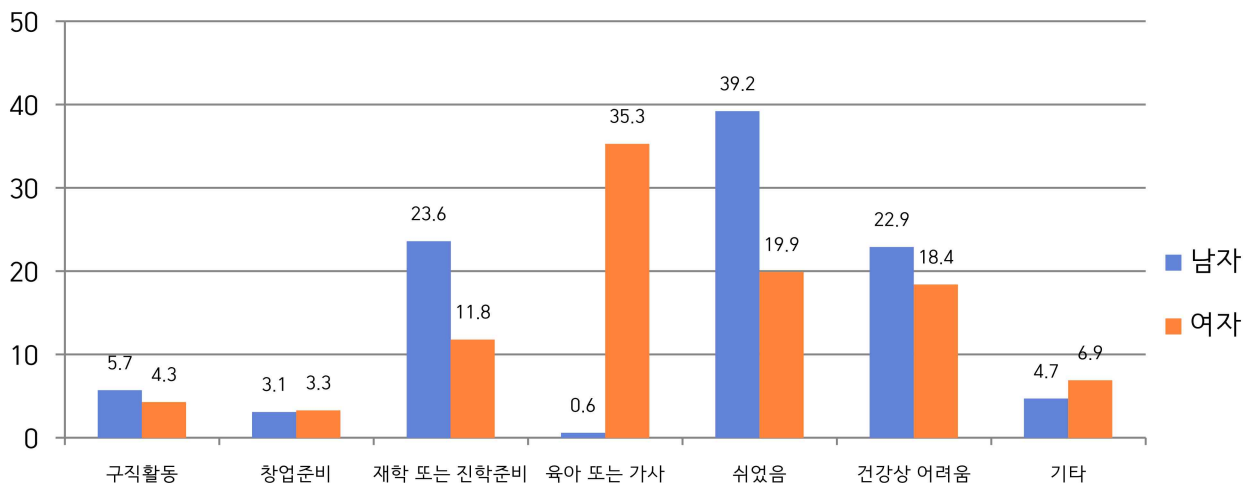
2-2.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남자는 「쉬었음」(39.2%), 여자는 「육아 또는 가사」(35.3%)

-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41.3%) 중에서 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쉬었음」이 2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 뒤를 「육아 또는 가사」(21.6%), 「건강상 이유」(20.2%)가 잇고 있음.
- 2023년은 「육아 또는 가사」(29.4%)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2025년은 「쉬었음」(27.5%) 응답이 가장 많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쉬었음」(39.2%), 「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23.6%) 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육아 또는 가사」(35.3%)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남성보다 가사·양육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



(단위 : %)

구분	계	구직활동	창업준비	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	육아 또는 가사	쉬었음	건강상 어려움	기타
2023년	100.0	3.1	3.5	21.3	29.4	19.2	20.0	3.5
2025년	100.0	4.9	3.3	16.5	21.6	27.5	20.2	6.1
남자	100.0	5.7	3.1	23.6	0.6	39.2	22.9	4.7
여자	100.0	4.3	3.3	11.8	35.3	19.9	18.4	6.9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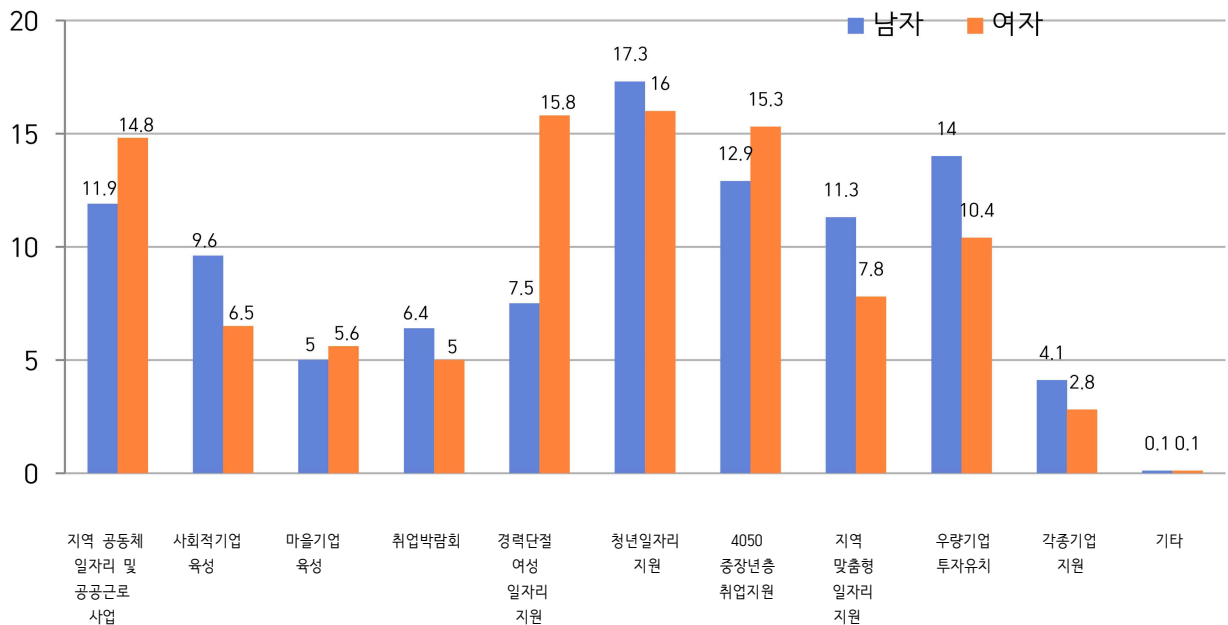
3.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가장 중요

- 목포시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집중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16.6%),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14.2%),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13.4%) 순으로 나타남.
- 2022년(16.1%)과 2024년(16.6%) 모두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응답이 가장 많음.
- 남자(17.3%)와 여자(16.0%) 모두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 %)



(단위 : %)

구분	계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 기업 육성	취업 박람회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4050 중장년 층 취업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우량 기업 투자 유치	각종 기업 지원	기타
2022년	100.0	16.0	9.5	4.4	6.9	10.3	16.1	12.9	10.6	10.5	2.8	0.0
2024년	100.0	13.4	7.9	5.3	5.7	12.0	16.6	14.2	9.4	12.1	3.4	0.1
남자	100.0	11.9	9.6	5.0	6.4	7.5	17.3	12.9	11.3	14.0	4.1	0.1
여자	100.0	14.8	6.5	5.6	5.0	15.8	16.0	15.3	7.8	10.4	2.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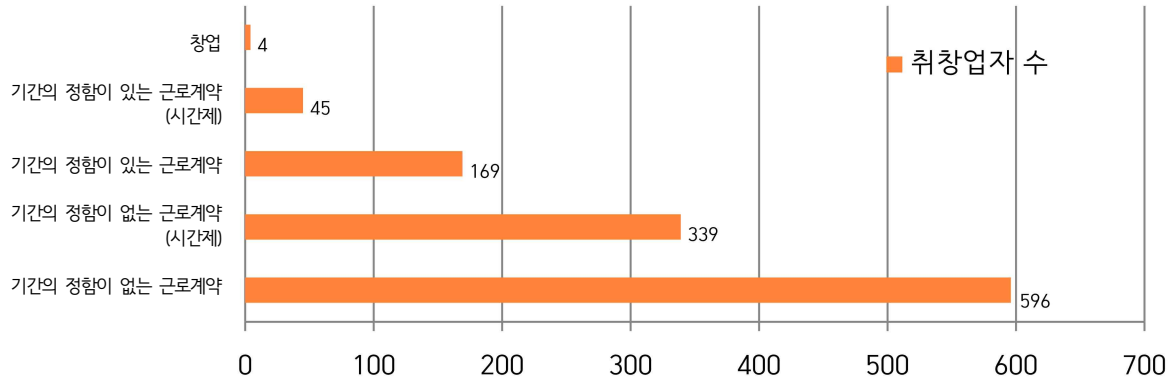
※ 출처 : 2024년 목포시 사회조사

4. 여성취업 지원기관 이용실적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창업자는 1,148명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인·구직 실적>

(단위 : 명)



(단위 : 명)

구인	구직	취업·창업 지원					
		소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창업
3,111	3,634	1,148	596	339	169	45	4

※ 출처 : 2025년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실적보고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 과정 이용자는 946명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

(단위 : 개, 명, %)

과정수	참가자 수	수료자 수	자격증 취득자 수	취업자 수				수료율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상용	일용	부업	창업			
27	946	864	262	84	-	-	-	91	25	85

※ 출처 : 2025년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실적보고

5. 모성보호지급자 현황

목포시 근로자 중 2025년 모성보호지급자*는 1,250명

* 모성보호지급자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은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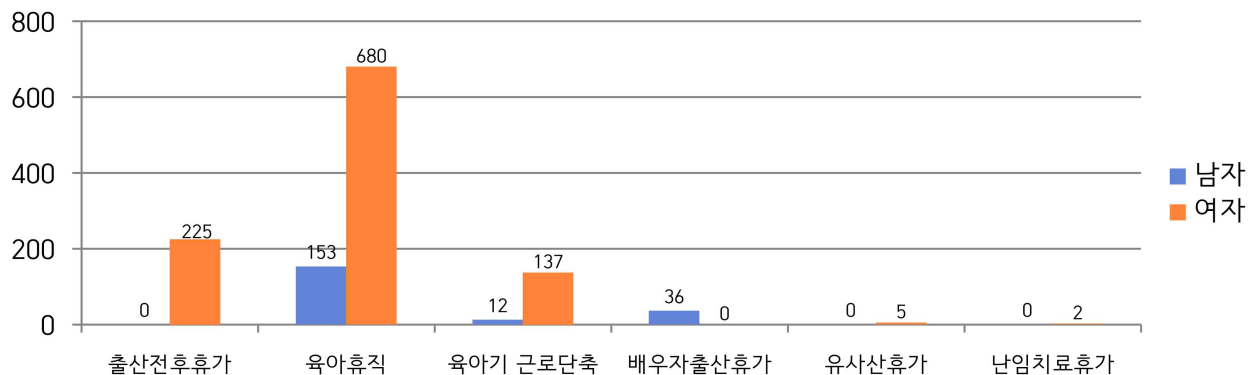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목포시 근로자 중 2025년 모성보호지급자는 1,250명임.

- 모성보호 급여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66.7%)가 가장 많으며, 출산전후 휴가급여(18.0%),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12.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2.8%) 순임.
- 성별로는 남자 16.0%, 여자 84.0%로 임신, 출산, 육아와 직접 관계가 있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임.
- 임금별로 보면 210~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85~210만원 미만 근로자, 300만원 이상 근로자 순임.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18.4%임.

<모성보호지급자 현황>

(단위 : 명)



(단위 : 명)

구분	계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	배우자출산 휴가급여	유사산 휴가급여	난임치료 휴가급여
2025년	1,250 (100.0%)	225 (18.0%)	833 (66.7%)	149 (12.0%)	36 (2.8%)	5 (0.4%)	2 (0.1%)
<성별>							
남자	201 (16.0%)	0	153	12	36	0	0
여자	1,049 (84.0%)	225	680	137	0	5	2
<임금별>							
85~210만원 미만	253 (20.3%)	22	169	61	1	0	0
210~300만원 미만	752 (60.1%)	158	503	66	18	5	2
300만원 이상	245 (19.6%)	45	161	22	17	0	0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통합보험시스템 EIS], (2025)모성보호지급자 수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안전

6-1. 야간활동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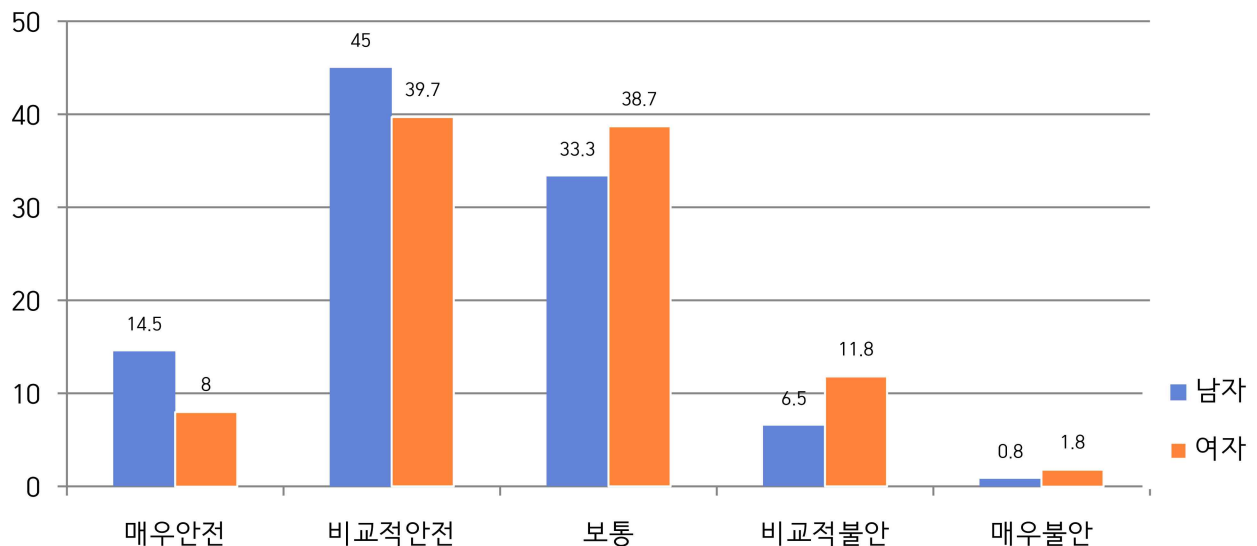
야간활동 및 보행 「안전하다」 남자 59.5%, 여자 47.7%

○ 야간활동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매우+비교적 안전)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고, 「보통」(36.0%), 「불안하다」(매우+비교적 불안)(10.5%)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야간활동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우세함.

- 「안전하다」 응답은 2023년(53.7%)과 2025년(53.5%) 비슷한 수준임.
- 성별로는 여성(47.7%)보다 남성(59.5%)이 야간활동을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불안하다」(매우+비교적 불안) 응답률(13.6%)이 남성 응답률(7.3%)보다 6.3%p 높아 여성의 야간활동에 대한 불안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야간활동 안전성>

(단위 : %)



(단위 : %)

구분	계	매우안전	비교적안전	보통	비교적불안	매우불안
2021년	100.0	11.6	34.1	43.0	8.7	2.6
2023년	100.0	13.1	40.6	31.2	12.3	2.9
2025년	100.0	11.2	42.3	36.0	9.2	1.3
남자	100.0	14.5	45.0	33.3	6.5	0.8
여자	100.0	8.0	39.7	38.7	11.8	1.8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6-2. 야간활동이 불안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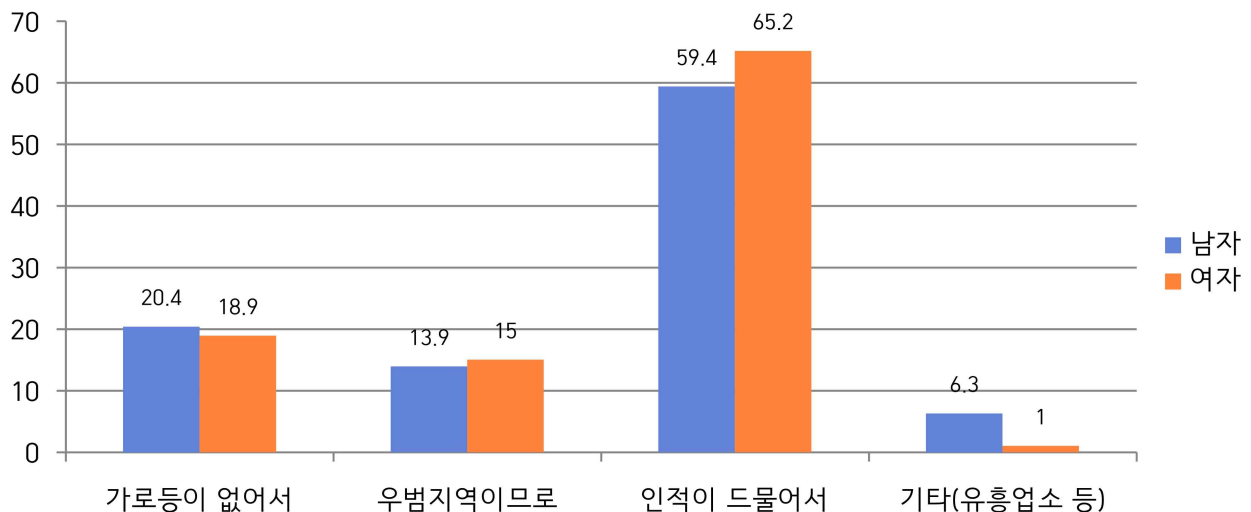
야간활동시 불안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인적이 드물어서」

○ 야간 활동 및 보행이 불안한 원인은 「인적이 드물어서」(63.2%)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서 「가로등이 없어서」(19.4%), 「우범지역이므로」(14.6%) 순으로 나타남.

- 「인적이 드물어서」라는 응답은 2023년 57.5%에서 2025년 63.2%로 증가함.
- 성별로는 남성(59.4%)과 여성(65.2%) 모두 「인적이 드물어서」 응답이 가장 많음.
- 「인적이 드물어서」는 지역, 성별, 연령, 학력 등 조사된 모든 분류에서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꼽혀, 인적이 드문 환경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단위 : %)



(단위 : %)

구 분	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유흥업소, 외국인 등)
2021년	100.0	31.5	15.7	51.0	1.9
2023년	100.0	27.9	14.0	57.5	0.6
2025년	100.0	19.4	14.6	63.2	2.8
남 자	100.0	20.4	13.9	59.4	6.3
여 자	100.0	18.9	15.0	65.2	1.0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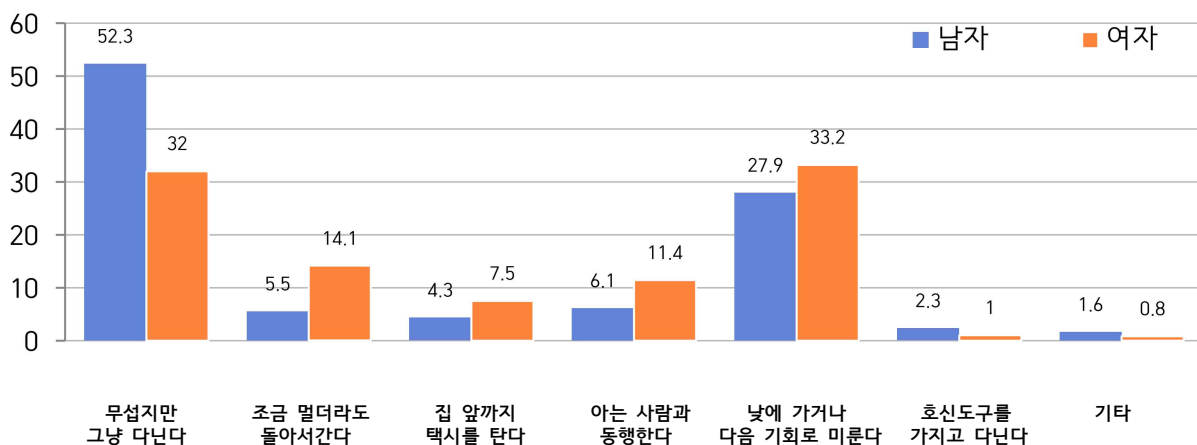
6-3. 야간활동 불안시 대처방법

야간활동에 불안함을 느끼는 시민의 대부분은 무섭지만 그냥 다님

- 야간 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으로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39.0%)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31.4%),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11.2%) 순으로 나타남.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소극적으로 감수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큼.
-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는 응답은 2023년 41.8%에서 2025년 39.0%로 감소한 반면, 「낮에 가거나 미룬다」는 회피형 응답은 2023년 26.9%에서 2025년 31.4%로 증가함.
- 성별로는 남성(52.3%)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33.2%)은 「낮에 가거나 미룬다」는 회피형 대처가 가장 많음. 여성이 야간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야간활동 불안시 대처방법>

(단위 : %)



(단위 : %)

구 분	계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 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자동차 이용 등)
2 0 2 1 년	100.0	45.2	7.7	9.2	8.4	27.2	1.1	1.1
2 0 2 3 년	100.0	41.8	9.8	12.0	8.7	26.9	0.6	0.2
2 0 2 5 년	100.0	39.0	11.2	6.4	9.5	31.4	1.4	1.1
남 자	100.0	52.3	5.5	4.3	6.1	27.9	2.3	1.6
여 자	100.0	32.0	14.1	7.5	11.4	33.2	1.0	0.8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6-4. 범죄 피해 두려움(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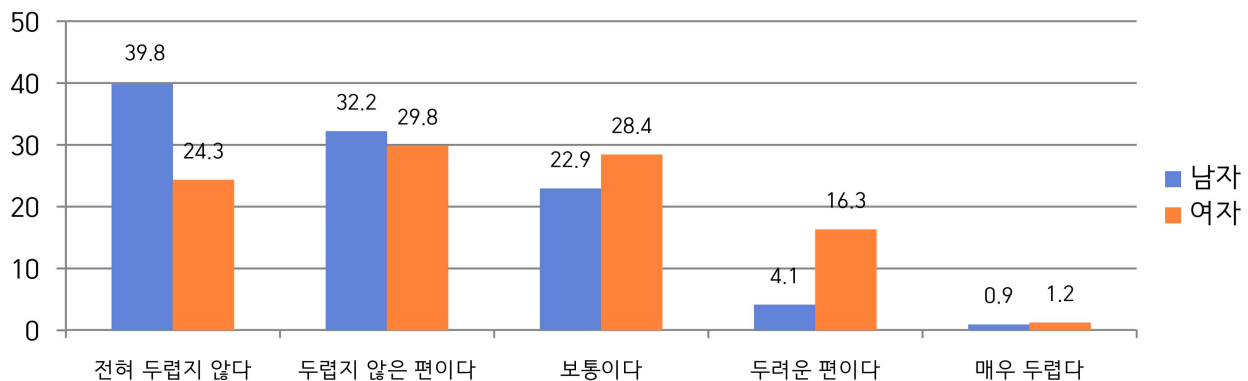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지 않다」 남자 72.0%, 여자 54.1%

○ 밤에 혼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전혀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31.5%로 가장 많고, 「두렵지 않은 편이다」(30.9%), 「보통이다」(25.8%), 「두려운 편이다」(10.6%), 「매우 두렵다」(1.1%) 순으로 나타남.

- 「두렵다」(11.7%)는 응답보다 「두렵지 않다」(62.4%)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5.0%)보다 여자(17.5%)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두렵다」는 응답은 15~29세(17.0%)가 가장 많고, 「두렵지 않다」는 응답은 50대(64.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단위 : %)



(단위 : %)

구 분	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2024년	100.0	31.5	30.9	25.8	10.6	1.1
<성별>						
남자	100.0	39.8	32.2	22.9	4.1	0.9
여자	100.0	24.3	29.8	28.4	16.3	1.2
<연령별>						
15~29세	100.0	34.1	25.9	23.0	14.3	2.7
30~39세	100.0	31.8	31.2	20.5	15.9	0.5
40~49세	100.0	30.8	31.4	27.8	10.0	0.0
50~59세	100.0	31.8	32.7	27.2	7.0	1.2
60~69세	100.0	28.9	31.3	27.3	11.6	0.9
70세 이상	100.0	32.6	31.4	25.8	8.7	1.5

※ 출처 : 2024년 목포시 사회조사

6-5. 범죄 피해 두려움(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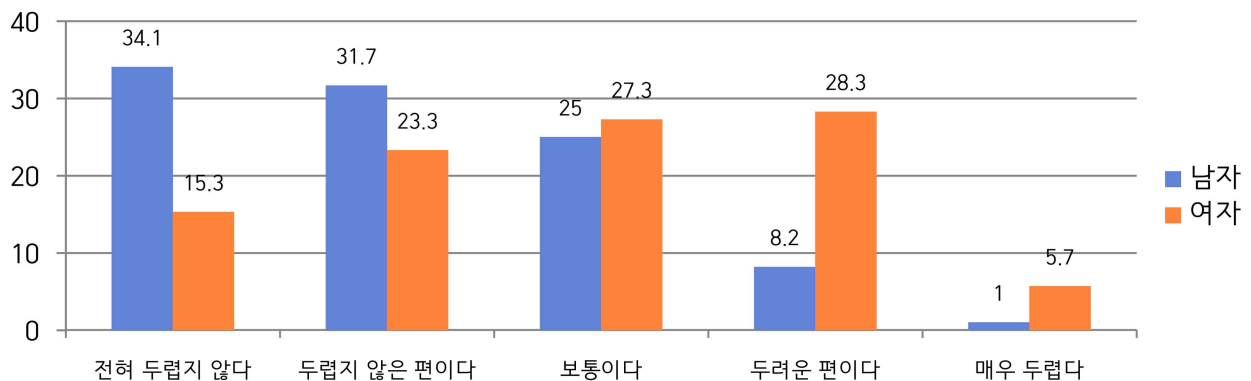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다」 남자 65.8%, 여자 38.6%

○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26.2%), 「전혀 두렵지 않다」(24.1%), 「두려운 편이다」(18.9%), 「매우 두렵다」(3.5%) 순으로 나타남.

- 「두렵다」(22.5%)는 응답보다 「두렵지 않다」(51.3%)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9.2%)보다 여자(34.0%)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두렵다」는 응답은 30대(30.1%)가 가장 많고, 「두렵지 않다」는 응답은 60대(53.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단위 : %)



(단위 : %)

구 분	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2024년	100.0	24.1	27.2	26.2	18.9	3.5
<성별>						
남자	100.0	34.1	31.7	25.0	8.2	1.0
여자	100.0	15.3	23.3	27.3	28.3	5.7
<연령별>						
15~29세	100.0	26.2	24.2	24.4	19.1	6.1
30~39세	100.0	25.6	24.9	19.5	25.0	5.0
40~49세	100.0	22.0	25.4	25.1	24.9	2.7
50~59세	100.0	22.8	29.5	30.3	15.7	1.7
60~69세	100.0	22.0	31.3	25.1	17.6	3.9
70세 이상	100.0	27.1	25.8	29.1	14.7	3.3

※ 출처 : 2024년 목포시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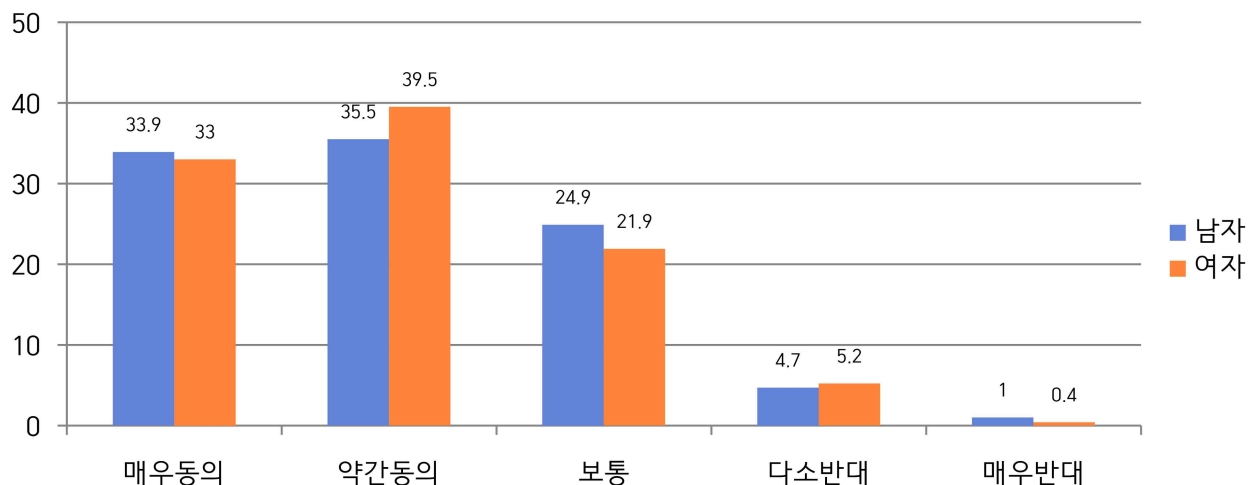
7-1. 젠더폭력 목적시 신고 의지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70.9%

-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매우+약간 동의)는 응답이 70.9%로 과반을 훌쩍 넘었으며, 「보통」(23.4%), 「반대한다」(다소+매우 반대)(5.6%)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69.4%)보다 여성(72.5%)이 가정폭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혼인상태별는 ‘배우자 있음’(73.1%)의 동의율이 ‘미혼’(68.9%)이나 ‘사별/이혼’(67.3%)보다 높게 나타남.

<이웃집에서 가정폭력 발생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위 : %)



(단위 : %)

구 분	계	매우동의	약간동의	보통	다소반대	매우반대
2025년	100.0	33.4	37.5	23.4	4.9	0.7
<성별>						
남자	100.0	33.9	35.5	24.9	4.7	1.0
여자	100.0	33.0	39.5	21.9	5.2	0.4
<혼인상태별>						
미혼	100.0	34.4	34.5	25.5	4.5	1.2
배우자있음	100.0	33.5	39.6	21.8	4.6	0.5
사별/이혼	100.0	31.9	35.4	25.3	6.6	0.9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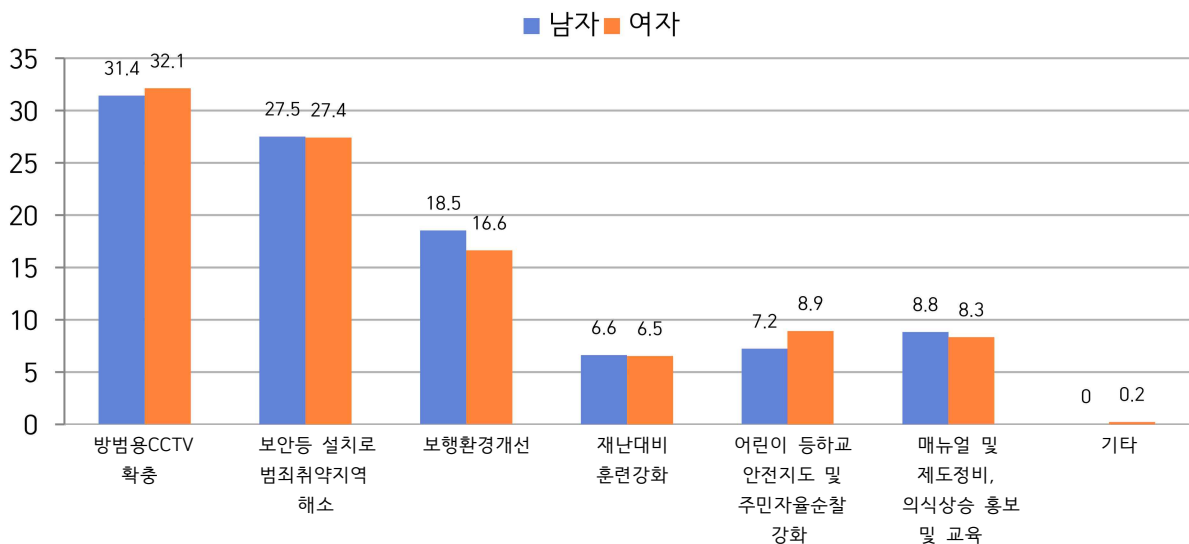
7-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안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31.8%가 「방범용 CCTV 확충」 선택

-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방범용 CCTV 확충」 응답이 31.8%로 가장 많고,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 취약 지역 해소」(27.4%), 「보행환경개선(보도블럭, 방지턱, 안전펜스 설치 등)」(17.5%) 순으로 나타남.
- 2022년(40.7%)과 2024년(31.8%) 모두 「방범용 CCTV 확충」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자(31.4%)와 여자(32.1%) 모두 「방범용 CCTV 확충」 응답이 가장 많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방범용 CCTV 확충」 응답이 가장 많음.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방안>

(단위 : %)



(단위 : %)

구분	계	방범용 CCTV 확충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지역 해소	보행환경 개선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강화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및 주민자율순찰 강화	매뉴얼 및 제도정비, 의식상승 홍보 및 교육	기타
2020년	100.0	38.0	26.1	9.5	7.2	9.1	9.9	0.0
2022년	100.0	40.7	23.7	13.0	5.1	7.0	10.1	0.5
2024년	100.0	31.8	27.4	17.5	6.6	8.1	8.5	0.1
남자	100.0	31.4	27.5	18.5	6.6	7.2	8.8	0.0
여자	100.0	32.1	27.4	16.6	6.5	8.9	8.3	0.2

※ 출처 : 2024년 목포시 사회조사

추진목표 3. 가족친화적 돌봄환경

8-1. 교육환경 만족도

시민들은 목포시 교육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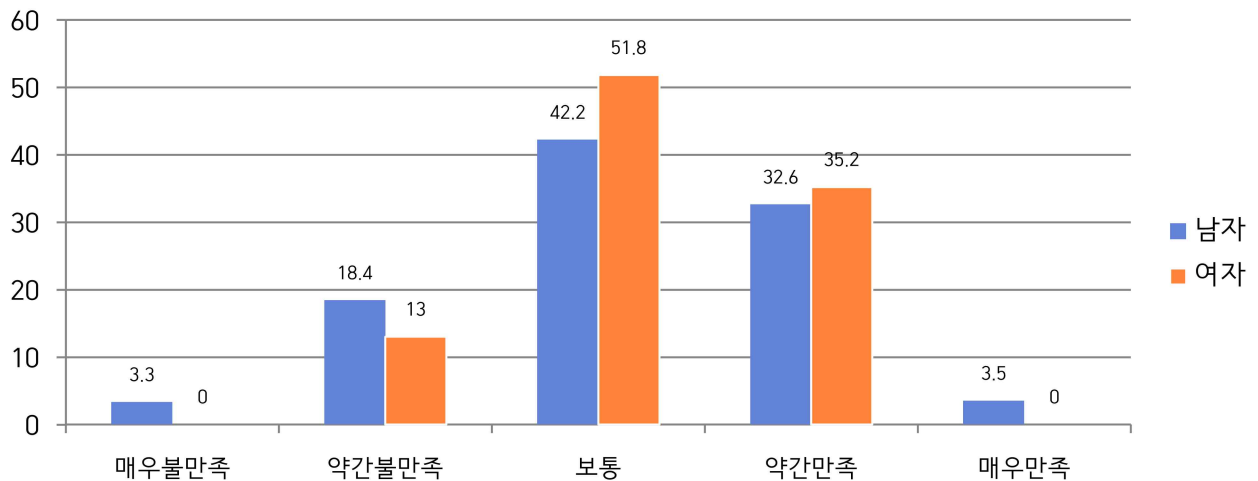
8-1. 교육환경 만족도 - 1)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

○ 거주 지역의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 만족도는 「보통」 응답이 44.0%로 가장 많고, 「만족」(매우+약간 만족) 36.0%,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 20.0% 순으로 나타남.

- 「만족함」 응답은 2023년 35.9%에서 2025년 36.0%로 거의 변화가 없으나, 「불만족」 응답은 2023년 27.3%에서 2025년 20.0%로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보육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여자(35.2%)보다 남자(36.1%)가 소폭 높게 나타남.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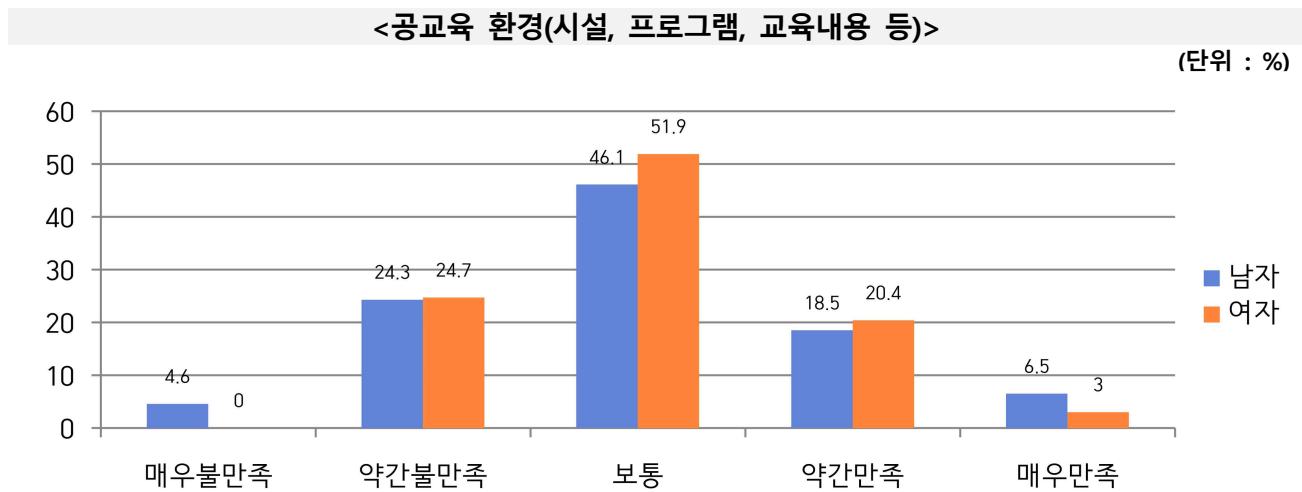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2 0 2 1 년	100.0	2.1	13.0	58.3	24.2	2.4
2 0 2 3 년	100.0	6.4	20.9	36.8	24.1	11.8
2 0 2 5 년	100.0	2.6	17.4	44.0	33.1	2.9
남 자	100.0	3.3	18.4	42.2	32.6	3.5
여 자	100.0	0.0	13.0	51.8	35.2	0.0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8-1. 교육환경 만족도 - 2) 공교육 환경(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등)

- 거주 지역의 공교육 환경(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등) 만족도는 「보통」 응답이 47.6%로 가장 많고,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 27.8%, 「만족」(매우+약간 만족) 24.6% 순으로 나타남.
- 만족도는 감소하고 불만족도는 증가하는 추세임. 「만족」 응답은 2023년 26.1%에서 2025년 24.6%로 감소한 반면, 「불만족」 응답은 2023년 25.1%에서 2025년 27.8%로 증가함.
- 성별로 보면 ‘공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여자(23.4%)보다 남자(25.0%)가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 분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2 0 2 1 년	100.0	3.3	17.0	57.7	18.6	3.4
2 0 2 3 년	100.0	2.5	22.6	48.7	21.6	4.5
2 0 2 5 년	100.0	3.4	24.4	47.6	19.0	5.6
남 자	100.0	4.6	24.3	46.1	18.5	6.5
여 자	100.0	0.0	24.7	51.9	20.4	3.0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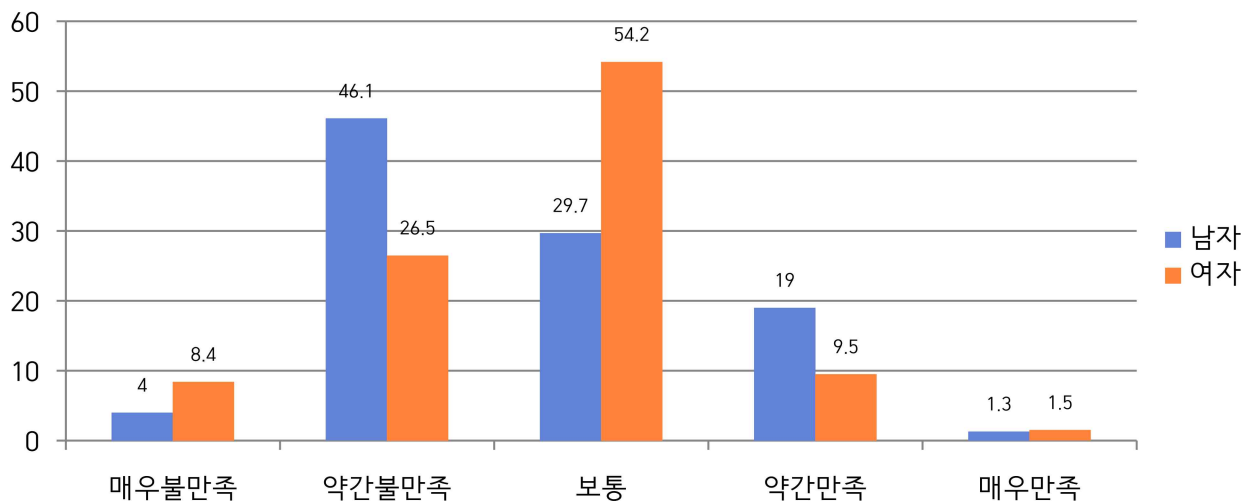
8-1. 교육환경 만족도 - 3) 학생들의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받을 기회

- 거주 지역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 이외에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불만족」(매우 + 약간 불만) 응답이 46.2%로 가장 많고, 「보통」 35.9%, 「만족」(약간 + 매우 만족)은 17.9% 순으로 나타남.

- 만족도는 감소하고 불만족도는 증가하는 추세임. 「만족」 응답은 2023년 26.1%에서 2025년 24.6%로 감소한 반면, 「불만족」 응답은 2023년 25.1%에서 2025년 27.8%로 증가함.
- 성별로는 「만족」 응답은 남자(20.3%)가 여자(11.0%)보다 높게 나타남.

<학생들의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받을 기회>

(단위 : %)



(단위 : %)

구 분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2 0 2 1 년	100.0	100.0	5.3	20.7	58.1	13.8
2 0 2 3 년	100.0	100.0	4.1	33.9	44.8	15.4
2 0 2 5 년	100.0	5.1	41.1	35.9	16.6	1.3
남 자	100.0	4.0	46.1	29.7	19.0	1.3
여 자	100.0	8.4	26.5	54.2	9.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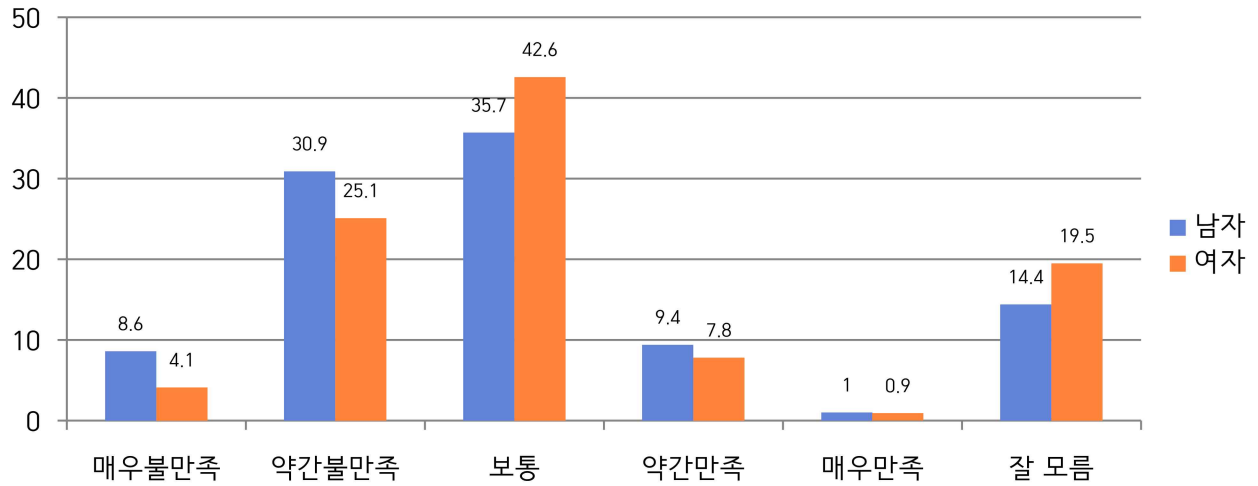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8-1. 교육환경 만족도 - 4) 평생교육 기회의 충분여부

- 거주 지역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는 「보통」 응답이 39.2%로 가장 많고, 「불만족」(매우 + 약간 불만)은 34.3%, 「만족」(약간 + 매우 만족)은 9.5%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불만족」(39.5%) 응답이 가장 많고, 여자는 「보통」(42.6%) 응답이 가장 많음.

<평생교육 기회의 충분여부>

(단위 : %)



(단위 : %)

구분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2021년	100.0	3.7	28.0	47.0	10.6	1.0	9.8
2023년	100.0	6.4	33.9	33.8	9.3	1.4	15.2
2025년	100.0	6.3	28.0	39.2	8.6	0.9	17.0
남자	100.0	8.6	30.9	35.7	9.4	1.0	14.4
여자	100.0	4.1	25.1	42.6	7.8	0.9	19.5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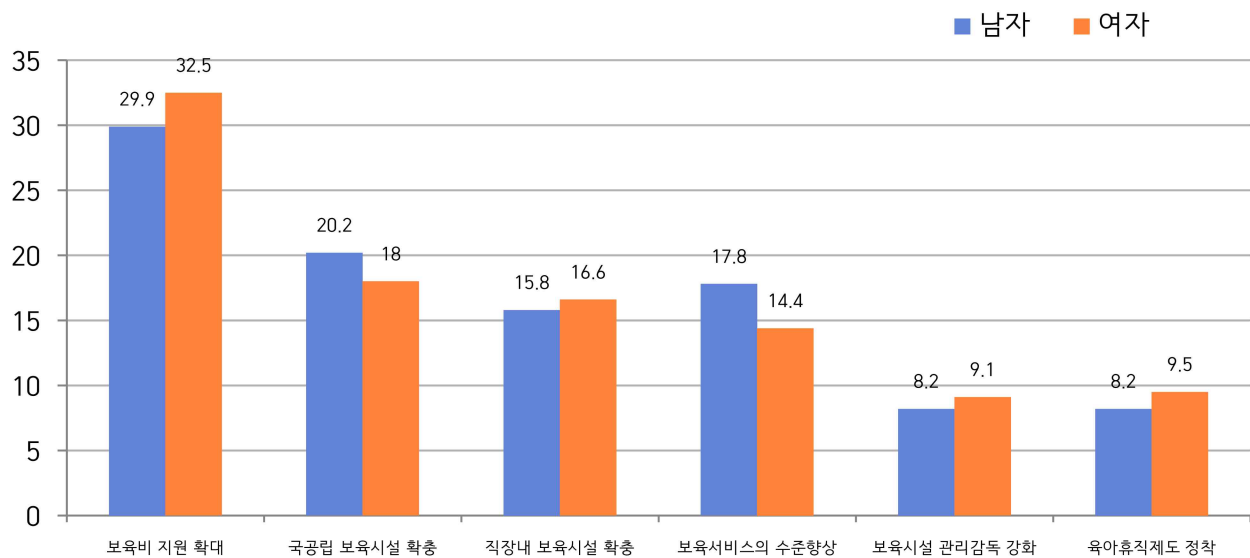
8-2.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

- 아동의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31.3%로 가장 많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19.0%),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16.2%) 순으로 나타남.
- 2022년(35.3%)과 2024년(31.3%) 모두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29.9%)와 여자(32.5%) 모두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가장 많음. 여성은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제도 등의 정착과 같이 일과 육아 병행 지원 요구도 많음.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



(단위 : %)

구 분	계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보육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착
2 0 2 0 년	100.0	23.8	21.8	17.2	15.4	11.1	10.7
2 0 2 2 년	100.0	35.3	14.7	15.2	18.0	9.0	7.6
2 0 2 4 년	100.0	31.3	19.0	16.2	16.0	8.7	8.9
남 자	100.0	29.9	20.2	15.8	17.8	8.2	8.2
여 자	100.0	32.5	18.0	16.6	14.4	9.1	9.5

※ 출처 : 2024년 목포시 사회조사

추진목표 4.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

9-1. 가족 내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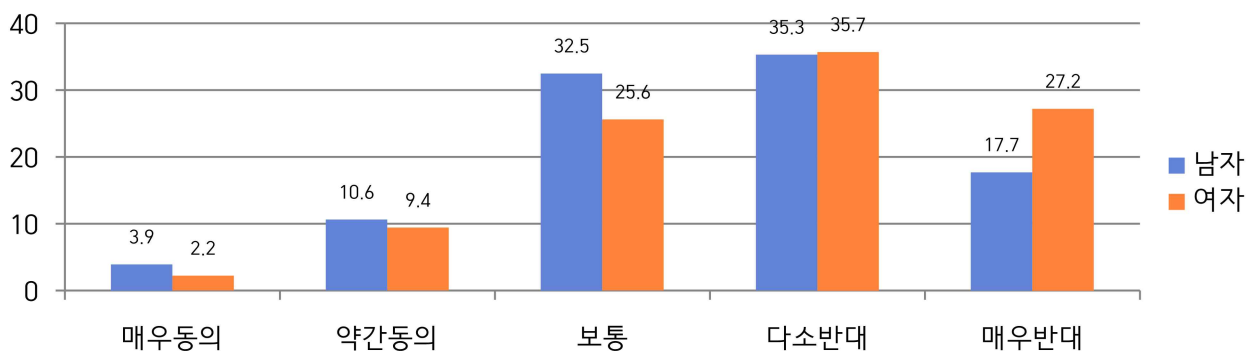
가족 내 의사결정권이 남성에게 있다에는 반대 인식 58.0%

○ 가족의 생계와 의사결정권이 남성에게 있다는 전통적 가정의 역할에 대해 「반대한다」(다소+매우 반대)는 응답이 58.0%로 과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보통」(29.0%), 「동의한다」(매우+약간 동의) (13.0%)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53.0%)보다 여성(62.9%)이 더 많이 반대하였고 혼인상태로 보면 '미혼'(68.6%)의 반대 비율이 '배우자 있음'(55.8%)이나 '사별/이혼'(49.8%)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서 15~29세의 반대율은 70.1%에 달하는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보통」(42.4%) 응답이 가장 높아져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있음.

<가족의 생계와 의사결정권은 남성에게 있다>

(단위 : %)



(단위 : %)

구 분	계	매우동의	약간동의	보통	다소반대	매우반대
2 0 2 5 년	100.0	3.0	10.0	29.0	35.5	22.5
< 성 별 >						
남 자	100.0	3.9	10.6	32.5	35.3	17.7
여 자	100.0	2.2	9.4	25.6	35.7	27.2
<혼인상태별>						
미 혼	100.0	0.5	4.0	26.9	35.2	33.4
배 우 자 있 음	100.0	3.7	10.8	29.6	36.5	19.3
사 별 / 이 혼	100.0	4.3	15.9	30.1	33.2	16.6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0.5	2.4	27.0	32.6	37.5
3 0 ~ 3 9 세	100.0	2.2	7.4	25.7	37.7	27.0
4 0 ~ 4 9 세	100.0	2.3	7.0	26.7	40.6	23.4
5 0 ~ 5 9 세	100.0	4.0	8.4	24.2	39.6	23.7
6 0 ~ 6 9 세	100.0	2.0	13.0	28.7	39.7	16.7
7 0 세 이 상	100.0	7.0	22.3	42.4	22.3	6.0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9-2. 가족 내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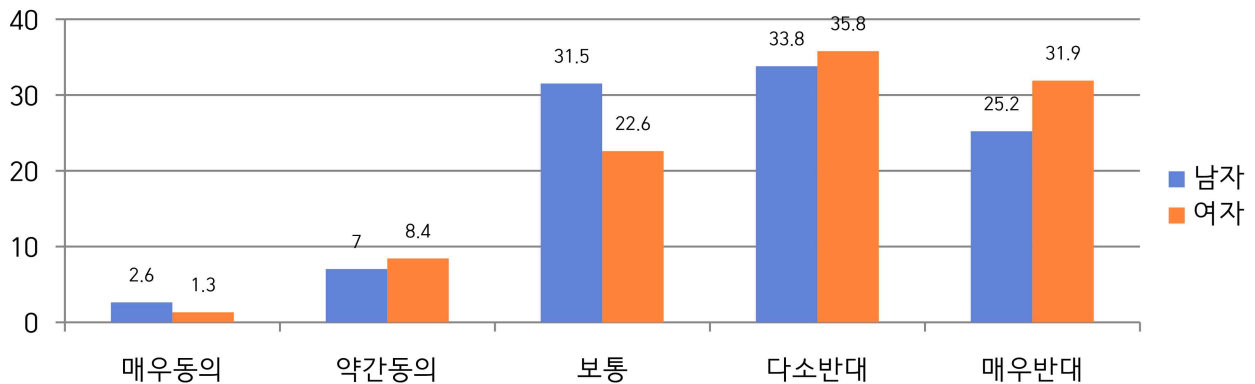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육아책임은 여성에게 있다에는 반대 인식 63.4%

○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다소+매우 반대)는 응답이 63.4%로 과반을 훌쩍 넘었으며, 「보통」(27.0%), 「동의한다」(매우+약간 동의)(9.6%)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59.0%)보다 여성(67.7%)이 더 많이 반대함.
- 혼인상태별로는 ‘미혼’(72.5%)의 반대 비율이 ‘배우자 있음’(61.7%)이나 ‘사별/이혼’(55.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함.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단위 : %)



(단위 : %)

구 분	계	매우동의	약간동의	보통	다소반대	매우반대
2025년	100.0	1.9	7.7	27.0	34.8	28.6
<성별>						
남자	100.0	2.6	7.0	31.5	33.8	25.2
여자	100.0	1.3	8.4	22.6	35.8	31.9
<혼인상태별>						
미혼	100.0	0.6	4.6	22.4	36.0	36.5
배우자 있음	100.0	2.0	8.0	28.3	34.4	27.3
사별/이혼	100.0	3.7	11.1	29.6	34.3	21.3
<연령별>						
15~29세	100.0	0.2	4.1	23.1	31.4	41.2
30~39세	100.0	1.4	5.7	22.3	33.9	36.7
40~49세	100.0	0.9	6.1	23.5	37.5	31.9
50~59세	100.0	2.8	6.3	23.2	36.2	31.5
60~69세	100.0	2.1	8.3	29.6	37.9	22.1
70세 이상	100.0	4.2	16.0	40.4	30.9	8.6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10-1. 성별 고정관념(성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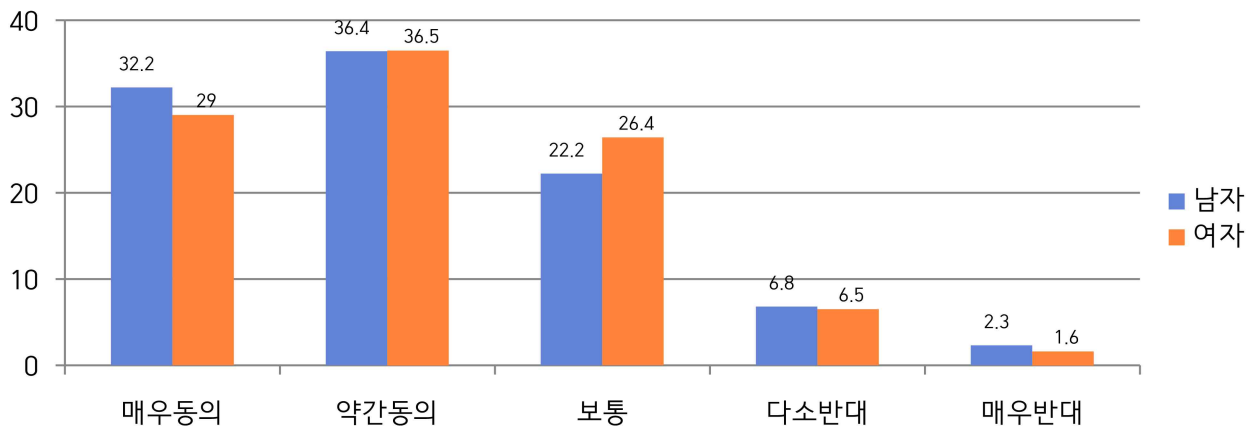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67.0%가 동의함

○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성 역할 인식에 대해 「동의한다」(매우+약간 동의)는 응답이 67.0%로 과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보통」(24.3%), 「반대한다」(다소+매우 반대)(8.6%)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65.5%)보다 남성(68.6%)이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함. 15~29세의 동의율은 55.0%인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81.0%에 달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단위 : %)



(단위 : %)

구 분	계	매우동의	약간동의	보통	다소반대	매우반대
2025년	100.0	30.6	36.4	24.3	6.6	2.0
< 성 별 >						
남 자	100.0	32.2	36.4	22.2	6.8	2.3
여 자	100.0	29.0	36.5	26.4	6.5	1.6
< 연 령 별 >						
15 ~ 29 세	100.0	23.9	31.1	33.8	7.3	3.9
30 ~ 39 세	100.0	25.1	38.1	26.4	9.0	1.4
40 ~ 49 세	100.0	31.4	32.4	25.9	8.7	1.5
50 ~ 59 세	100.0	36.0	32.3	21.8	7.0	2.9
60 ~ 69 세	100.0	28.3	42.6	22.0	5.6	1.5
70 세 이상	100.0	36.6	44.4	16.3	2.7	0.0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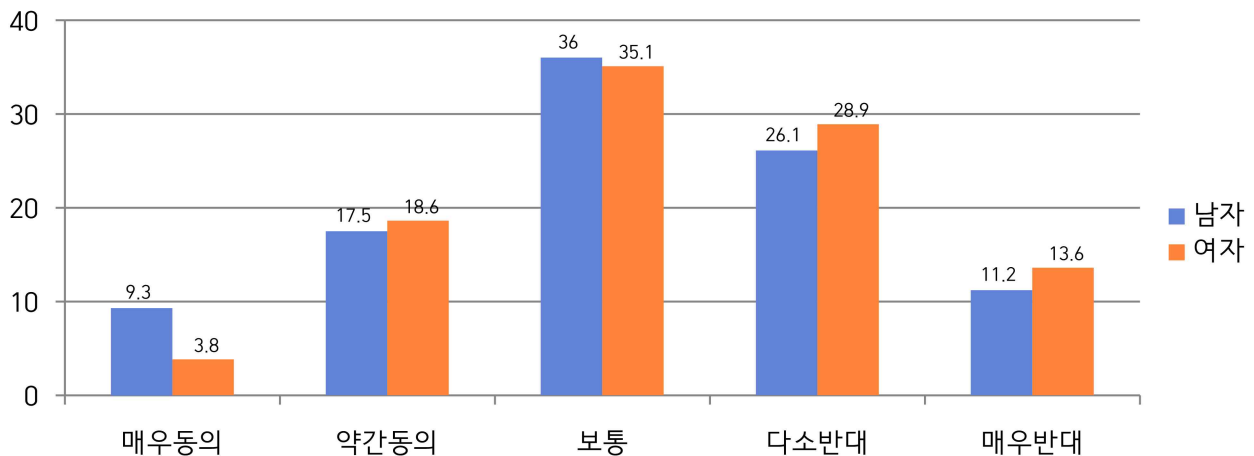
10-2. 성별 고정관념[직업]

여성과 남성의 직업군은 구분되어야 한다에는 39.9%가 반대함

- 직업의 성별 구분에 대해 「반대한다」(다소+매우 반대)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고, 「보통」(35.6%), 「동의한다」(매우+약간 동의)(24.5%)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37.3%)보다 여성(42.5%)이 직업의 성별 구분에 더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15~29세 50.8%).

<직업군은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어야 한다>

(단위 : %)



(단위 : %)

구분	계	매우동의	약간동의	보통	다소반대	매우반대
2025년	100.0	6.5	18.0	35.6	27.5	12.4
<성별>						
남자	100.0	9.3	17.5	36.0	26.1	11.2
여자	100.0	3.8	18.6	35.1	28.9	13.6
<연령별>						
15~29세	100.0	3.6	9.6	35.9	32.2	18.6
30~39세	100.0	7.9	13.6	33.4	28.7	16.5
40~49세	100.0	6.5	16.5	33.7	30.4	12.9
50~59세	100.0	9.5	16.2	34.8	27.9	11.6
60~69세	100.0	4.5	19.7	37.1	27.7	11.1
70세 이상	100.0	7.3	32.6	38.0	17.4	4.6

※ 출처 : 2025년 목포시 사회조사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